Dubai유, 53달러대에서 “멤멤”

10월7일 53.44달러로 0.41달러 하락 ... WTI는 0.25달러 상승

국제유가가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보합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7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53.44달러로 전날보다 0.41달러 떨어졌으며, 북해산 Brent유 현물가격도 0.05달러 내려간 배럴당 56.97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61.79달러로 0.25달러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61.84달러로 전날보다 0.48달러, 런던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선물가격은 0.84달러 올라간 배럴당 59.2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10/04	10/05	10/06	10/07
현 물	Dubai	56.29	55.45	53.85	53.44
	Brent	59.26	59.14	57.02	56.97
	WTI	63.97	62.72	61.54	61.79
	Oman	57.79	57.06	55.41	54.95
	Tapis	65.79	65.43	63.48	63.17
NYMEX 선물(WTI)	11월	63.90	62.79	61.36	61.84
	12월	63.76	62.69	61.06	61.62
환율(원/달러)		1051.00	1049.20	1052.00	1047.2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청산 매수와 난방유 부족 우려 때문에 선물가격은 상승했지만 멕시코만의 일부 정제시설 가동재개 소식 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5/10/10>